

# Morning Meeting Brief

## Highlights ...

### 투자포커스

#### 중국 경기 회복 가능한가?

- 4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 원인은 조업일수 감소(청명절 연휴), 재고소진에 따른 생산 감소, 외부환경 불안에 따른 외수 감소 등 => 현재 재고조정 막바지 시점으로 5월 이후에는 긴축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가세하며 제품 생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5월~6월 시중 자금 공급량 약 3천 위안 이상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6월 추가 기준율 인하 가능성
- 내수 부양정책 기대감(6월 에너지절약 가전 보조금 실시 예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 이후 경기 반전 가시화

성연주 769,3805 cyanzhou@daishin.com

### 투자분석

#### 그리스로 인한 시장 급락 이후의 대응

- 그리스의 민심이 시리자(긴축안 재협상 고수, 현재 지지율 1위)를 떠나고, 독일이 양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 재총선(6.17일) 이전에도 안도(Relief)의 가능성은 열려있음
- 무질서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도, 유로존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격지표들(유로화, 미국 국채, 스페인 CDS 등)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 있음

김승현 769-3912 economist1@daishin.com

### 투자전략

####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주가를 움직이는 후보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하여 향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절대주가 및 상대주가와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수급관련 변수들(대차잔고, 기관/개인 누적 순매수량)과 Valuation 지표 또한 미래 주가 움직임과 상관성이 높으며 이러한 요인별 상관성은 종목별로 상이하였다.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랜덤워크에 가깝지만 펀더멘털과 수급 요인들 그리고 Valuation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은 장기투자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장기 투자시계를 투자 이전에 종목별 유의한 변수를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이승호 769,2076 sungho@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SBS: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는 중이다

- 4월 광고판매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가 및 5~6월 광고판매 증가추세
- 주요 드라마 광고 완판 중(수목드라마, 주말극장, 특별기획)
- '일요일이 좋다' 동시간대 예능 중 시청률 1위, '정글의 법칙'은 할증 적용 및 광고 완판

김희재 769,3540 khjae@daishin.com

---

**코오롱 글로벌: 바겐세일 기간을 놓치지 말자**

-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효과 커질 전망
- 재무 리스크는 낮아지고, 시너지 기대감은 커진다
- 체계적 위험을 피하지 못했으나, 재무적 안정성 확보, 2012년 실적 기대감 고려시 매수기회

조윤호 769.3079 uhno@daishin.com

---

**해상운송: 머스크라인 2012년 1분기 적자지속**

- 전세계 No.1 컨테이너선사 APM Maersk 1분기 영업손실 \$571mn 기록
- 선속 감속을 통한 1분기 공급 9% 감축으로 박스당 벙커소모량 감소, 선박 효율성 증대
-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운임인상, 공급조절(선박공동운항, 감속운항, 계선, 용선반선) 지속
- 컨테이너 운임인상의 필요성을 동사 및 대부분 선사와 하주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

양지환 769.2738 arbor@daishin.com

---

투자포커스

중국 경기 회복 가능한가?

선임연구원 성연주 769-3805 cyanzhou@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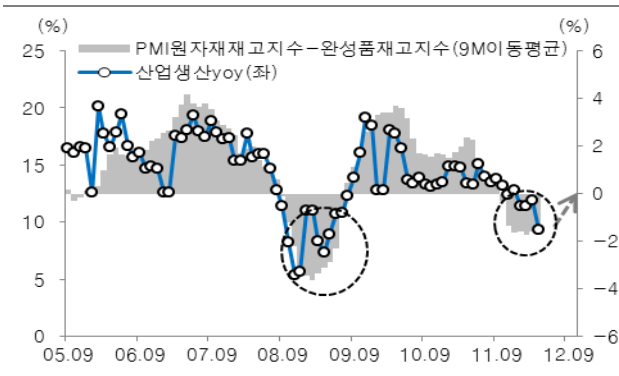
5월 이후 경기 회복을 예상하는 이유

4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중국 경기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장 큰 원인은 조업일수 감소(청명절 연휴), 재고소진에 따른 생산 감소, 외부환경 불안에 따른 외수 감소 등이다. 특히 1월~2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 및 수입 물량 증가로 재고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4월에 기업들이 의도적인 재고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보다 생산지표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현재 재고조정 막바지 시점으로 5월 이후에는 긴축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가세하면서 제품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참조).

6월 추가 기준을 인하와 내수 부양정책 실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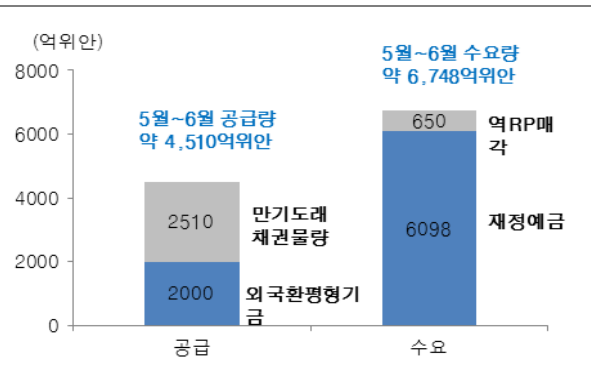
5월 18일 인민은행이 50bp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약 4,200억 위안(예금 잔액 84.2조 위안)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 증가 등 유동성 공급 확대로 경기 둔화를 방어해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5월~6월 시중 자금 공급량이 약 3천 위안 이상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6월 추가 기준을 인하 가능성이 있다. 내수 부양정책 기대감(6월 에너지절약 가전 보조금 실시 예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표1참조)되면서 5월이후 경기반전은 가시화될 것이며, 이에따라 2/4분기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림 1. 원자재 재고지수 하락(2월~4월)→완성품 재고지수 하락(4월~5월)→생산 증가(5월 이후)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5월 ~ 6월 약 2,000 ~ 3,000억 위안 공급 부족- 6월 추가 기준을 인하 가능성



자료: Wind,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표 1. 2012년 가전 유통기업 진행 중인 내수부양 정책

구분	기간	정책	내용
소영가전+광주	2011년 10월 1일~ 2012년 12월 31일	'이구환신' 정책	- '보장성주택 거주자'에 한해 에어컨, TV, 세탁기, 온수기 등 매가가의 10% 보조금 지급 - 약 5000~10000 가구 혜택, 500만 위안 정도 보조금 지원
소영가전+북경	2012년 4월~	가전 보조금 정책	- 전국 31개 지방정부와 연합하여 '보장성주택 거주자'에 한해 판매가가의 10% 보조금 지급
GOME+31개 도시	2012년 4월~		
중앙 정부	2012년 6월~7월(예정)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 1급/2급 에너지 절약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온수기 5개 가전제품, 판매액 10% 보조금 지급 - 약 5천억 위안 정도 보조금 지원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분석

그리스로 인한 시장 급락이후의 대응

Economist 김승현 769-3912 economist1@daishin.com

그리스의 민심이 시리자(긴축안 재협상 고수, 현재 지지율 1위)를 떠나고, 독일이 양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 재총선(6.17일) 이전에도 안도(Relief)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리스의 민심과 독일의 독심이 변하는 조짐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스의 선택은 변할 가능성이 높다. 5월 6일 총선의 쟁점이 긴축안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이었다면, 6월 재총선은 긴축안의 재협상에 더해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를 선택해야 한다. 유로존의 탈퇴는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1차 총선과 달리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한다. 그리스 외부에서는 다른 유로존 회원국이 고집센 독일을 얼마나 빨리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나올때까지 예금인출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가 총선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될 것이다.

반등 여부에 확신을 더할 가격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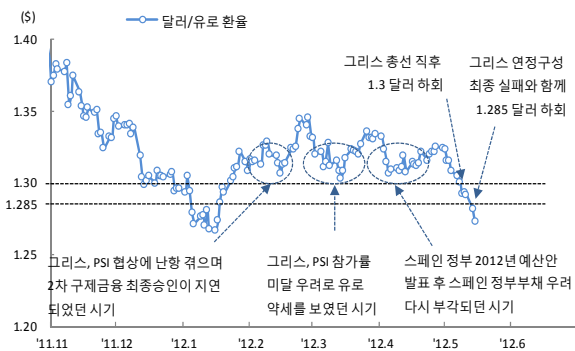
<유로화 환율: 유로당 1.285달러 복귀해야>

그리스의 연정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된 직후 1.285달러를 하향 이탈. 결국 유로당 1.285달러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마지노선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대치 국면(긴축 재협상과 그리스존 탈퇴)이 해소되는 출발점은 유로화가 1.285달러 이상으로 회복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듯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10년물 기준, 1.8% 이상으로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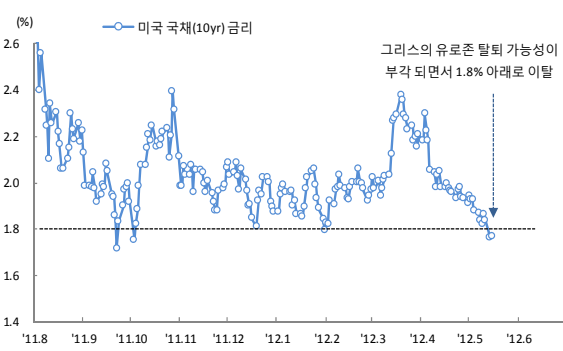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8%를 하향 이탈했던 적은 2011년에도 단 이틀 뿐이었음. 극단적인 위험회피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선호가 반드시 요구되며, 그 최소한의 기준선으로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1.8%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그림 3. 유로화 다시 1.285 달러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 국채(10yr) 금리 1.8% 하향 이탈: 극단적인 위험회피 경향을 반영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이승호 769-2076 sungho@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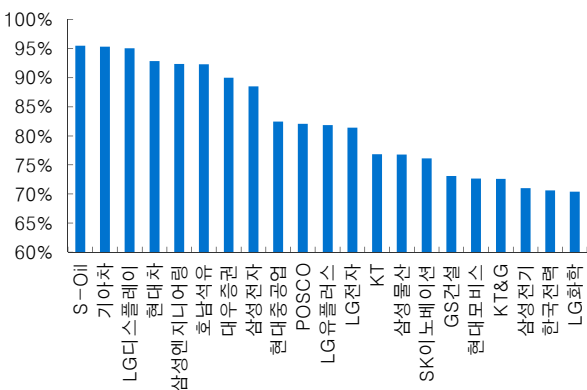
주가의 변화는 주주 또는 잠재 주주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 인식 변화는 해당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컨센서스)이 바뀌거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주식 자산 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거나, Valuation 면에서 매력이 바뀌거나, 또는 이러한 복수의 요인들의 변동에 기인한다.

실제, 최근 3년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종목별 EPS(12개월 forward) 컨센서스 변화는 해당 종목의 절대 및 상대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IT, 정유, 화학, 철강, 은행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EPS 컨센서스와 주가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동 EPS 컨센서스가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컨센서스의 하향조정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에서는 절대주가보다 상대주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평균 상관계수를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하여 벤치마크 위험을 헤지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급 요인은 검토한 여러 변수 중 후행 상대주가에 상관성을 가진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상대주가에 역행하는 대차잔고 추이, 종목 상대주가를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기관(개인) 1주일/1개월 누적 순매수량(순매도량) 추이, 그리고 해당 종목에 기초한 ELS 발행현황 등이 유의한 변수로 판단된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변수들의 민감도가 종목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Valuation 지표 또한 주가변동의 유의한 변수로 판단되는데 과거 12개월 PER과 PSR에 기초한 Quantile별 수익률은 저평가일수록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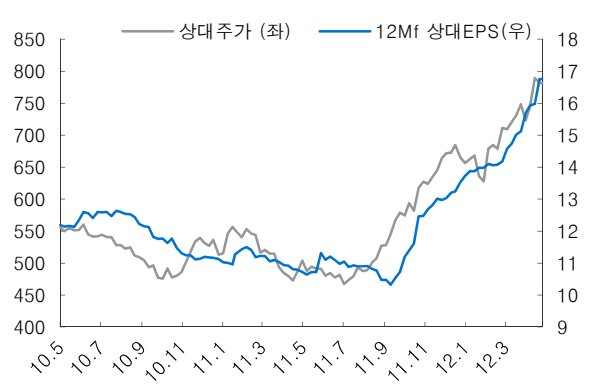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랜덤워크로 보이지만 펀더멘털과 수급 요인들 그리고 Valuation 수준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은 장기투자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투자시계를 보다 길게 잡고 종목별로 유의한 요인들에 대한 점검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운용을 권고한다.

그림 1. 12개월 forward 절대EPS vs 상대주가의 상관계수가 높은 기업 (최근 1년)



자료: Datastream,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삼성전자 12개월 forward 상대EPS vs 상대주가 (최근 2년)



자료: Datastream,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산업 및 종목 분석

탐방 Comment 기업분석 2012.05.17

**SBS**  
(034120)

김희재 769,3540 khjaeje@daishin.com

**BUY**

[매수, 유지]

미디어업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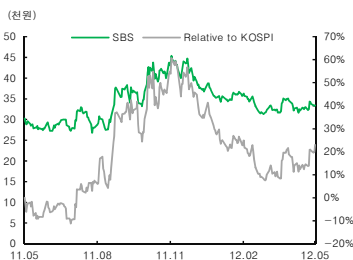
현재가 33,400

---

목표주가  
▲ 44%
48,000

KOSPI	1840.53
시가총액	610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
자본금(보통주)	91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5,350 원 / 26,8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 억원
외국인지분율	0.0%
주요주주	SBS 미디어홀딩스 34.7% 국민연금공단 8.9%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2.8	-1.8	-7.9	10.4
상대수익률	3.0	6.4	0.0	26.2



##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는 중이다

투자포인트

- 4월 광고판매금액 전년 동기대비 증가 및 5~6월 광고판매 증가추세
- 주요 드라마 광고 완판 중(수목드라마, 주말극장, 특별기획)
- '일요일이 좋다' 동시간대 예능 중 시청률 1위, '정글의 법칙'은 할증 적용 및 광고 완판

Comment

2분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분기는 광고경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일 동사에 대한 탐방결과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SBS의 4월 광고판매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5월도 현시점에서는 전년 동기보다 광고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자체 경쟁력 회복이다. 1분기에 부진했던 드라마 라인업이 2분기부터는 크게 회복되었다. 1분기에는 월화드라마('샐러리맨 초한지')와 수목드라마('부탁해요 캡틴') 모두 평균 시청률이 지상파 3사중 3위였고, 수목드라마는 경쟁사와의 시청률 격차도 매우 컸다. 하지만, 2분기에는 월화('패션왕'), 수목('옥탑방 왕세자')드라마 모두 시청률 2위를 기록중이다. 특히, '옥탑방 왕세자'는 평균 시청률이 11.3%로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 완판을 기록중이다. 또한, 주말극장('맛있는 인생')과 특별기획('바보엄마') 역시 광고 완판을 기록중이다.

둘째, 미디어렐의 성과이다. 예능 프로그램은 KOBACO 체제하에서는 광고 할증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4월말 종영된 'K-Pop Star'는 광고단가에 30% 할증이 붙은 상태로 완판되었고, 5/6에 새로 시작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도 30% 할증이 붙은 상태에서 광고 완판을 기록중이다. 민영 미디어렐 체제에서는 광고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이다. SBS의 미디어렐인 미디어크리에이트는 현재 약 15명 정도의 영업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KOBACO 시절 영업3국에서 SBS를 전담하던 인력인 7~8명의 두 배이다. 여기에, 현재 추가로 영업인력을 채용중이고, 최종적으로 약 30명 정도의 영업인력이 배치되면 보다 공격적인 영업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요한 영업지원인 전산시스템은 과거 KOBAnet을 제작했던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신규로 제작해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인만큼, KOBAnet에 익숙한 미디어플래너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쟁사 파업의 반사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이 좋다'는 지난 4월 22일 이후 4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있다.

동사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Buy), 목표주가 48,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2년 예상 EPS 2,777원에 PER 16.7배(올림픽이 있었던 2004년의 PER의 저점)를 적용하였다.

Results Comment 기업분석 2012.05.17

**코오롱글로벌**  
(003070)

**바겐세일 기간을 놓치지 말자**

투자포인트

-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효과 커질 전망
- 재무 리스크는 낮아지고, 시너지 기대감은 커진다
- 체계적 위험을 피하지 못했으나, 재무적 안정성 확보, 2012년 실적 기대감 고려시 매수기회

조윤호 769,3079 uhno@daishin.com

**BUY**

[매수, 유지]

건설업종

---

현재가 4,710

---

목표주가  
▲102%
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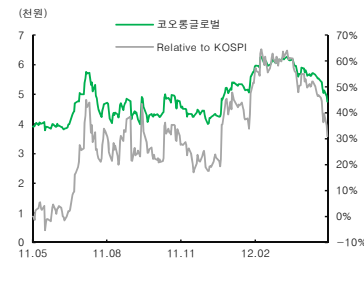
Comment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1분기 실적

코오롱글로벌의 별도기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36십억원(yoy +14.5%), 영업이익 21십억원(yoy -41.8%), 세전이익 6십억원(yoy -66.5%)으로 집계되었다.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감소한 것은 1) 건설부문 원가율 상승과 2) 2011년 1분기 자산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에 17십억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1분기 일회성 이익을 제거하면 영업이익은 yoy 7.5% 증가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치에 비해 매출액 성장률이 다소 낮았는데, 건설부문의 1분기 공사 진행률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부문 공사 진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차(BMW 및 미니)의 판매 호조 및 AS 매출 증가로 인해 코오롱글로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매분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매출액이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금융비용이 반영된 세전이익이 (+)인 점,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1분기 실적이라고 평가한다.

KOSPI	1840.53
시가총액	387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
자본금(보통주)	411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270 원 / 3,785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 억원
외국인지분율	2.0%
주요주주	코오롱 외 15 인 59.3%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	-19.5	-20.0	16.4
상대수익률	12.3	-	-	-
절대수익률	-9.1	-14.8	-14.7	30.0



2012년 1분기 실적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확정치		잠정치		직전추정치	컨센서스	대신증권 추정치		
	1Q11	4Q11	1Q12(A)	YoY			1Q12	1Q12	2Q12
매출액	730	511	836	14.5	888	907	1,012	191.4	21.0
영업이익	37	24	21	-41.8	30	29	33	20.7	53.0
순이익	13	-1	7	-48.8	12	12	15	118.0	135.1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1,120	1,450	4,278	4,553	4,904
영업이익	-22	69	155	165	182
세전순이익	-85	8	107	130	155
총당기순이익	-68	4	81	98	117
지배지분순이익	-68	4	81	98	117
EPS	-2,892	149	1,006	1,219	1,453
PER	NA	28.9	4.7	3.9	3.3
BPS	10,981	5,742	6,559	7,651	8,984
PBR	0.4	0.7	0.7	0.6	0.5
ROE	-20.6	1.1	15.9	16.9	17.2

주: IFRS별도기준, 2011년까지는 코오롱건설 실적, 영업이익은 회사별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코오롱글로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Issue&News 산업분석 2012.05.17

# 해상운송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양지환 769.2738 arbor@daiashin.com

## 머스크라인 2012년 1분기 적자지속

### 투자포인트

- 전세계 No.1 컨테이너선사 APM Maersk 1분기 영업손실 \$571mn 기록
- 선속 감속을 통한 1분기 공급 9% 감축으로 박스당 벙커소모량 감소, 선박 효율성 증대
-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운임인상, 공급조정(선박공동운항, 감속운항, 개선, 용선반선) 지속
- 컨테이너 운임인상의 필요성을 동사 및 대부분 선사와 하주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

### Comment

#### 머스크라인 2012년 1분기 영업손실 \$571Mn 으로 4분기 연속 적자 행진

전세계 No. 1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라인의 2012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2012년 1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6,312mn(+7.4% yoy), 영업손실은 \$571mn(적자전환 yoy), 당기순손실 \$599mn(적자전환 yoy)을 기록했다. 2012년 1분기 동사의 컨테이너수송량은 4.4백만 TEU(+18% yoy), 컨테이너운임은 \$1,323/TEU(-9.0% yoy, -0.9% qoq)로 수송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평균운임은 전년동기와 전분기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ox(TEU기준)당 영업손실은 \$129.8을 기록하여 2011년 4분기의 \$143.5/TEU의 손실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사의 유류비용은 \$1.9bn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으며, 분기평균 벙커급유단가는 \$685/ton을 기록하였다. 1분기 동사의 CAPEX는 \$1,130mn으로 전년동기대비 99.3%(\$563mn)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노선에서 수송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임은 노선별로 등락 엇갈려

노선별로 머스크라인의 수송량은 전노선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사의 주력항로인 아시아-유럽항로의 경우 1,628천TEU(+22% yoy)를 기록하였는데, Headhaul 구간의 수송량은 13%(yoy)증가한데 반해, Backhaul 구간의 수송량은 무려 39%(yoy)증가하였다. 태평양 항로의 수송량은 전년동기대비 21%증가한 484천TEU로 나타났으며, Intra-Asia는 264천 TEU(+22% yoy), 대서양항로 352천TEU(+8% yoy) 등을 기록했다.

아시아-유럽항로의 운임은 21%(yoy)하락, 미주항로의 운임도 5%(yoy)하락, 라틴아메리카 8%(yoy)하락하였으나, 아프리카와 Intra-Asia항로의 경우에는 각각 2%(yoy), 3%(yoy)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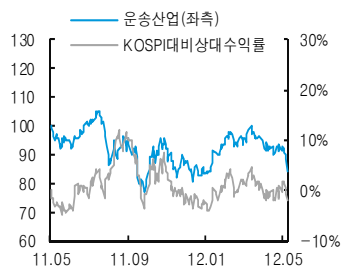
### Top pick

한진해운 Buy

목표주가  
▲ 79.7%

23,000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8.9	-9.0	-13.2	-11.4
상대수익률	-3.5	-1.5	-5.8	1.3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5/15	5/14	5/11	5/10	5/09	05월 누적	12년 누적
개인	24.1	93.9	267.2	244.4	219.4	1,640	-3,269
외국인	-187.0	-157.7	-166.8	-208.3	-346.8	-2,188	8,671
기관계	32.2	116.9	-23.4	135.5	-56.3	552	-2,480
증권	22.8	-9.3	51.9	19.9	7.2	42	565
보험	10.5	3.0	-34.5	-14.9	-2.7	93	1,175
투신	-11.6	64.5	-43.2	86.4	-34.1	260	-3,430
은행	-2.6	12.7	19.1	4.8	6.4	85	447
종금	3.6	1.1	-3.5	1.2	1.8	11	25
연기금	10.7	20.9	5.3	34.4	-18.2	92	-1,256
사모펀드	-1.2	24.0	-18.6	3.8	-16.7	-30	-6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 이노베이션	20.3	삼성전자	106.7	삼성전자	62.8	호남석유	46.9	
삼성엔지니어링	12.4	현대차	22.9	현대차	35.9	SK 이노베이션	39.5	
GS	12.0	한국전력	19.7	KT	25.8	엔씨소프트	23.1	
호남석유	9.4	KT	15.6	현대모비스	20.2	SK 하이닉스	22.8	
LG 화학	8.3	NHN	14.8	POSCO	17.3	GS	21.4	
엔씨소프트	7.4	삼성전자우	14.2	기아차	15.6	S-Oil	14.4	
기아차	6.9	한국타이어	11.1	한국전력	15.0	LG 전자	14.3	
신한지주	6.6	LG 전자	9.3	삼성화재	14.7	LG 화학	13.7	
S-Oil	6.2	삼성화재	7.5	강원랜드	13.4	삼성중공업	13.6	
우리금융	5.6	KB 금융	5.0	한국타이어	12.8	한진해운	13.1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안랩	1.5	셀트리온	7.4	파트론	2.2	셀트리온	4.1	
알에프텍	1.3	네오위즈게임즈	4.5	CJ E&M	2.2	모두투어	3.8	
덕산하이메달	1.2	포스코 ICT	2.9	컴투스	2.2	슈프리마	2.8	
AP 시스템	1.1	실리콘웍스	2.2	CJ 오쇼핑	2.0	실리콘웍스	2.7	
파라다이스	1.0	아이씨디	1.4	네패스	1.5	성광벤드	1.6	
다음	0.8	솔브레인	0.9	네오위즈인터넷	1.2	포스코 ICT	1.0	
하이록코리아	0.8	씨젠	0.8	에스엠	0.9	태광	0.8	
성우하이텍	0.7	게임빌	0.8	JCE	0.9	이노와이어	0.8	
한국전자인증	0.6	멜파스	0.8	코텍	0.8	덕산하이메달	0.7	
CJ 오쇼핑	0.5	소리바다	0.6	게임빌	0.8	네오위즈게임즈	0.6	

자료: KOSCOM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5/16	5/15	5/14	5/11	5/10	05월 누적	12년 누적
개인	272.3	24.1	93.9	267.2	244.4	1,912	-2,997
외국인	-490.6	-187.0	-157.7	-166.8	-208.3	-2,679	8,181
기관계	31.8	32.2	116.9	-23.4	135.5	584	-2,448
증권	-1.6	22.8	-9.3	51.9	19.9	40	564
보험	11.0	10.5	3.0	-34.5	-14.9	104	1,186
투신	-26.9	-11.6	64.5	-43.2	86.4	233	-3,457
은행	7.7	-2.6	12.7	19.1	4.8	93	455
종금	-1.9	3.6	1.1	-3.5	1.2	9	23
연기금	35.4	10.7	20.9	5.3	34.4	128	-1,221
사모펀드	8.2	-1.2	24.0	-18.6	3.8	-22	2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우	15.4	삼성전자	318.5	삼성전자	83.3	SK 하이닉스	83.0
현대차 2 우B	14.0	NHN	17.3	KT	14.2	삼성전기	18.7
제일모직	8.8	현대중공업	16.8	현대모비스	13.7	LG 디스플레이	16.6
SK C&C	8.8	삼성 SDI	16.6	NHN	11.9	SK 텔레콤	14.8
현대위아	8.6	LG 화학	15.3	한국전력	11.6	삼성전자우	14.5
삼성생명	8.6	POSCO	15.3	제일모직	10.6	현대차 2 우B	13.8
삼성전기	7.5	현대차	14.5	삼성중공업	8.9	LG 전자	13.0
엔씨소프트	7.5	기아차	13.8	삼성 SDI	8.8	삼성물산	9.6
삼성테크윈	7.4	현대모비스	12.6	외환은행	7.9	신한지주	6.8
하나금융지주	6.5	KT	11.4	고려아연	7.9	KT&G	5.6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다음	7.7	덕산하이메탈	3.4	CJ E&M	3.3	덕산하이메탈	3.4
실리콘웍스	3.4	게임빌	1.8	네오위즈게임즈	2.5	다음	2.8
메디포스트	1.1	아이씨디	1.3	컴투스	2.1	아이씨디	1.7
파트론	1.1	유진테크	1.3	성우하이텍	1.5	네패스	1.4
위메이드	0.6	컴투스	1.2	유진테크	1.3	셀트리온	1.3
에스에프에이	0.6	셀트리온	1.0	CJ 오쇼핑	1.3	하림	1.2
CJ 오쇼핑	0.5	OCI 머티리얼즈	0.9	팅크웨어	1.0	테라세미콘	1.0
테라리소스	0.5	메가스터디	0.9	매일유업	0.9	인터플렉스	0.9
하이록코리아	0.5	이녹스	0.9	성광벤드	0.9	모두투어	0.9
파라다이스	0.4	씨젠	0.9	메가스터디	0.8	이녹스	0.8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SK 하이닉스	65.0	-12.0	삼성전자	894.9	-7.6
호남석유	38.7	-9.2	현대차	86.7	-3.8
기아차	38.3	-4.0	삼성중공업	81.8	-6.7
현대모비스	36.6	-1.8	LG 화학	76.6	-6.8
신한지주	34.5	-3.4	POSCO	63.2	-3.2
다음	31.7	11.5	LG 전자	53.4	-7.4
현대차 2 우B	22.3	-2.7	한국전력	50.9	-5.1
SK 텔레콤	21.2	-4.0	KT	33.9	-2.6
삼성전자우	19.8	-6.8	KB 금융	33.6	-5.2
SK 이노베이션	16.5	-9.4	NHN	27.9	-10.8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371.6	-7.6	SK 하이닉스	206.9	-12.0
POSCO	110.4	-3.2	호남석유	185.3	-9.2
제일모직	106.1	-3.6	현대중공업	108.3	-3.6
현대차	73.4	-3.8	SK 이노베이션	77.6	-9.4
LG 전자	65.8	-7.4	엔씨소프트	68.9	-12.3
삼성화재	61.7	0.5	삼성엔지니어링	57.9	0.8
한국전력	61.0	-5.1	현대제철	53.4	-5.8
삼성테크윈	51.2	-3.2	LG 디스플레이	47.9	-14.5
현대위아	50.2	-11.0	현대건설	44.4	-4.2
삼성전기	48.8	-11.7	LG 화학	41.4	-6.8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5/16	5/15	5/14	5/11	5/10	05월 누적	12년 누적
한국	-489.6	-183.9	-143.9	-133.2	-198.6	-1,494	8,155
대만	0.0	-222.9	-72.5	-320.4	-82.2	-1,953	1,979
인도	0.0	-25.2	75.2	32.9	64.2	58	8,821
태국	-5.5	5.7	12.4	-36.2	-157.1	-179	2,554
인도네시아	-77.7	-61.4	-21.4	-34.7	-33.5	-280	973
필리핀	-16.6	-46.9	-13.5	5.5	10.6	223	829
베트남	-2.6	-5.0	-2.9	3.8	-0.4	12	12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